

祝 辭

2019. 10. 31. (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성 수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이며,
실제 발언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제2회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회계학회 등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개혁 이후 회계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맞이한 「회계의 날」은 앞으로 더욱 더 의미 있는

기념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최재형 감사원장님 등

귀빈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로

정부포상을 비롯하여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회계의 날의 의미 및 회계의 중요성

아시다시피 오늘은
회계개혁법인 「新외부감사법」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17.10.31일)된지 꼭 2년째 되는 날입니다.

「회계의 날」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작년에 제정되었고 올해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흔히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고 합니다.

회계정보는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의 주식 거래, 금융기관의 신용제공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정보가 왜곡되는 경우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그릇된 의사결정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저하로 연결되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기업 또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투명한 회계를 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의 날」 슬로건인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도
이러한 인식하에서 출발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Ⅲ.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말씀

정부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2년간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17.10월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되어
상장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었고,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 감사 의무 등

작년부터는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절차 개선(‘18.2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19.6월) 등
집행방식의 혁신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말부터 상장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
주요 회계개혁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귀빈 여러분,

이번 회계개혁으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 제도변화로 인한 불편함, 비용부담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상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균형된 관점에서 각종 회계개혁 조치가
시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회계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기업, 감사인 등 시장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회계개혁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계개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의 일부 비용 부담 증가가 있는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보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변화하는 발전의 과정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개혁 실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적극 청취하여 이를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할 테니
언제든 회계당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계업계는 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고
회계개혁의 동반자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영업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감사 품질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이번 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여러분들도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업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당국도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회계처리 적용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우려의 목소리가 큼니다.

기업 등이 관련 기관에
회계기준을 질의하면
전문가적 판단 사항임을 들어
답변에 소극적이거나 늦게 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계감리시에는
기존 규율 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일 때와
동일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강한 제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내용대로
금융위를 비롯하여 금감원·회계기준원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 등의 질의에 대해 회계기준 적용 방법 등을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귀빈 여러분,
어떠한 분야든 개혁을 통해 변화하는 것은
항상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기업, 감사인 및 회계당국 모두가
회계개혁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개혁은 성공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2회 「회계의 날」을 맞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계 발전에 계속 기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